

# “5·18을 배우자” 금남로 청소년 축제 ‘5·18 광장의 꽃’ 100인의 릴레이 아트

‘5·18 레드 페스타’  
27일 오후 1~9시



촛불청소년 금남로 붉게 물들이다

차없는 거리에서  
플레이숍·연극·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27일 오후 5시~새벽 2시  
박재동·홍성담 등 작가들  
분수대 옆 둘러 앉아 작업



‘2017 레드 페스타’가 27일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행사.



작가들의 현장 작업을 볼 수 있는 ‘100인의 오월 정신 릴레이아트’ 모습.

‘518 레드 페스타’는 지난 2012년 5·18 기념재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치르고 있는 행사다. 청소년들이 각종 공연과 이벤트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5·18을 배우고 관심을 갖게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에도 ‘레드 페스타’가 찾아온다.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촛불청소년 금남로 붉게 물들이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행사는 오후 1~4시 ‘패피들의 거리 퍼레이드’로 문을 연다. 지난 4월 모집한 전국 청소년단체, 시민 등 50개팀 1000명이 거리로 나선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몸짓으로 5월을 기억하고 이슈를 표현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두시간 동안 플레이숍이 잇따라 진행된다. 오후 4시 ‘4·16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오후 5시 ‘5·18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청소년, 시민 약 1000명이 참여한다.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세월호와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자리다.

거리 한편에서는 연극 ‘그날의 이야기-상황재연’(오후 2시·4시·6시)이 공연된다. 사전에 모집한 청소년 50명이 지난 한달간 연습한 5·18 상황극을 감상할 수 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80년 5월 당시 청소년 시민군들의 10월간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담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행사 내내 운영되는 ‘이슈놀이터-오월의 숲’이다. 전국 청소년 30개팀이 참여해 오늘날 청소년의 현실과 이슈를 담아낸 전시와 체험, 놀이로 구성된다. 또 버스킹 무대로 마련해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에 수공예품을 간직할 수

있는 마켓도 열린다.

1980년 금남로에서는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해 토론하던 ‘민주화대성회’가 있었다. ‘레드 페스타’에서는 이를 본 딴 ‘청소년 금남로성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청소년들이 금남로 바닥에 둘러앉아 현재 사회에 대한 문제, 저항의식을 진술하게 이야기하는 자유발언을 한다. 현장에서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행사는 ‘금남로 저항파티’(오후 7시30분)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청소년성회에서 쌓인 열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이자 DJ들이 저항 의식이 담긴 힙합 음악을 80년 영상과 함께 들려준다. 또 1960~70년대 금지곡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음악도 들길 수 있다.

한편 5·18민주광장에서는 오후 5시18분부터 28일 새벽 2시까지 ‘광장의 꽃-1980~2017’을 주제로 ‘제4회 100인의 오월 정신 릴레이아트’가 열린다.

박재동, 공성술 등 유명 만화가부터 홍성담, 한희원 등 지역화가, 시인들까지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작가 120여명이 분수대 주위에 깔린 캔버스에 현장 작업을 한다. 평소 보기 힘든 작업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들은 ‘나는 광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콘셉트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광장을 보고 느낀 이미지를 만화, 회화, 글씨 등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또 밤 9시부터는 무대에 올라 노래와 토크쇼를 통해 광주 오월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릴레이아트 작품은 추후 5·18기념재단 1층 전시실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문의 062-368-13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음악창작소’ 음반·공연지원·아카데미 ‘뮤지션 인큐베이팅’ 27일 5개 팀 최종 경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음악창작소’에서 주관하는 음반지원·공연지원·아카데미 사업 대상자가 선정됐다.

신진 음악인을 지원하는 ‘뮤지션 인큐베이팅’은 27일 오후 4시 광주음악창작소 내 ‘피크뮤직홀’에서 최종 경연을 연다. 2차 경연을 통과한 ‘설’, ‘안태’, ‘원보름’, ‘이진우’, ‘팝’ 등 5개 팀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참가팀들은 경연을 통해 대상(상금·창작지원금 1000만원), 금상(800만원), 은상(600만원), 동상(2개팀·각 350만원)으로 나뉜다. 인디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와 2016년 뮤지션 대상팀 ‘빛과 소음(사진)’이 축하 공연을 한다.

음반제작지원을 하는 ‘사운드뱅크’는 17일이 선정돼 새로운 음악 콘텐츠 개발을 시도할 예정이다.

‘피크뮤직 아카데미’는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레코딩과 믹싱, 마스터링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프로툴스’과정이 신설됐다. 심사를 거쳐 수강생을 선별, 5월부터 11월까지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음악비즈니스’과정은 공연기획과 제작, 홍보, 저작권법까지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미디 프로덕션’은 작곡과 음원 녹음 등 완성도 높은 음악 제작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밖에 신진 뮤지션들의 전국 투어 공연과 버스킹, 라이브클럽 공연 등을 지원하는 ‘라이브뱅크’ 공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획공연을 지원하는 ‘오픈 스테이지’는 올해 광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을 비롯해 산울림의 ‘김창환과 블랙스톤즈’, ‘로로스’에서 활동한 ‘도재명’의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54-362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시민자유대학 6월3일 여름 학기 개강

### 동서양 고전읽기 등 강좌

세계시민적 관점으로 학문과 예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민자유대학(학장 장복동 전남대 교수)이 6월3일 여름 학기(8주)를 개강한다.

여름학기는 동서양 고전읽기·글쓰기·문학·심리학·사진 인문학 강좌로 구성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글 쓰는 삶-책 쓰는 길목에서’ 강좌(6월13일 개강)는 시민들이 단순히 지식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설됐다. 장복동 학장이 진행하며 논증적 글쓰기를 주제로 토론을 통해 논문 한편을 완성해 보는 시간이다. 향후 수업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동서양 고전읽기’는 고전 한 권을 한 학기동안 수강생들이 직접 강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

에는 6월5일부터 매주 월요일 ‘순자’(진행 정영수 전남대 교수)를, 6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해결 예술철학’(박병기 전남대 교수)을 강독한다.

인기 수업 ‘한국 문학 강좌’(6월8일부터 매주 목요일)는 ‘온몸으로 읽다-한국의 시와 소설’을 주제로, 나희덕 시인과 한순미 조선대 교수가 진행한다.

오명자 전 동신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 ‘그림 속 심리학’은 6월9일부터 매주 금요일, 김준영 작가와 김현 전남대 교수가 진행하는 ‘빛으로 그리다-사진인문학’은 6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1개 강좌 13만원(학생 4만원), 2개 25만원이다. 6월2일까지 홈페이지(cafe.daum.net/volkshochschule) 또는 전화(062-961-1110)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참숯을 정갈하게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서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